



이성기 (우정조경 대표)

우정조경을 찾아서

최신에 국산 전투기들이 푸른
창공을 가르며 힘찬 굉음을 내는 곳.
공군 비행장과 공항으로 이름난
서부 경남의 끝자락 사천시에 자리한
경남 조경수유통센터 조합장이며
조경수 재배는 물론 설계,
시공과 조경 시설물 제조 공장까지
두루 갖춘 복합 조경의 선두
주자인 이성기 대표의 우정건설
조경을 찾았다.



글 | 사진 : 사진작가 김해웅

복합 조경의 산실 하동 진교 농장

먼저 방문한 곳은 우정조경의 자랑인 난대수종 전문 농장이자 조경 시설물 제조 공장과 직원 교육 시설까지 두루 갖춘 진교 농장은 본사 사무실이 있는 사천시에서 남해고속도로를 따라 서쪽으로 약 30여km 떨어진 하동군 진교읍 안심리에 자리하고 있는 우정조경의 대표 농장이다.

불과 8년전에 시작한 농장이지만 난대수종과 고급 조경수들이 운치 있게 배치되어 있고 별장같은 교육 시설 주변의 멋진 정원은 누가 보아도 대를 물려온 농장처럼 짜임새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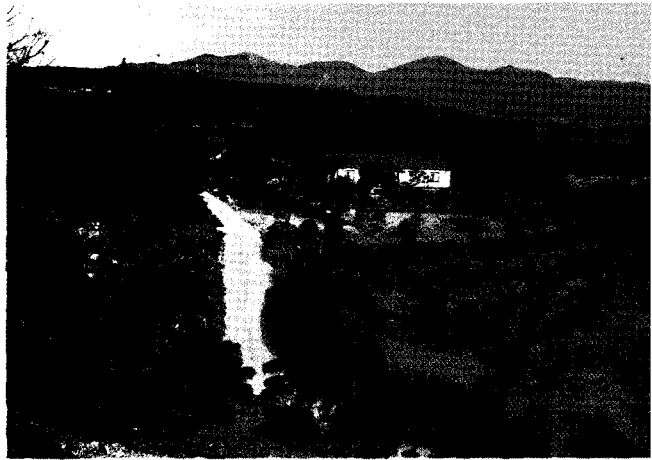
지방도로 변에 길게 늘어선 공장 건물은 농장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문 구실을 하여 가지런히 심겨진 조경수들이 더욱 중후하고 고귀하게 느껴진다.

10ha 3만평의 넓은 농장은 아산 지역 산허리를 가로질러 조성한

농장으로 경사가 가파른 나무심기에 불편한 곳이 많지만 평탄지에는 띄엄띄엄 공장건물 3개동이 있고 직원 교육용의 멋진 별장 같은 건물은 그의 뛰어난 정원 조성 솜씨를 느낄 수 있으며 확 트인 산하가 한 눈에 보이는 난대수종 특유의 푸른 잎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직원교육시설전경



직원교육시설과 농장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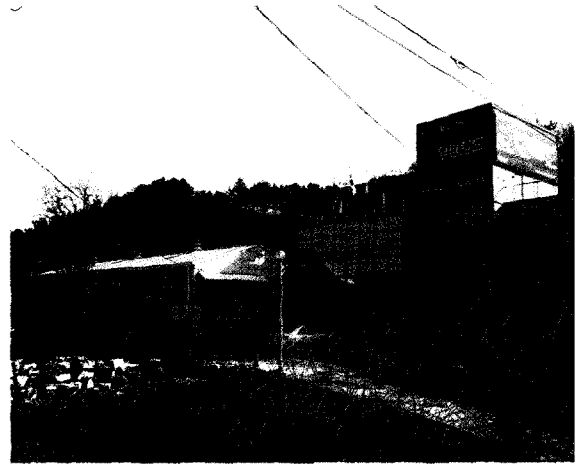
조경시설물 제조 공장

조경업의 토탈 시스템(Total System) 구축, 이것이 그의 경영 철학 제1목표다.

조경수 재배를 기본으로 하여 설계, 시공, 시설물 제조, 유통까지 모든 조경분야를 토탈 하여야만 성공하고 발전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남들보다 먼저 2004년에 이곳 진교 농장에 조경시설물 제조 공장 3개 동을 건립 철재와 목재를 사용하는 각종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의 조경 시공에서 의례히 부수되는 시설물 들이 많은 것에 착안 생소한 분야인 제조업에 과감히 뛰어든 것이 적중, 이제는 30명의 직원에 연간 5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기업체로 성공하였다.

입구의 제1공장은 철재 제품만 생산하는 시설이고 300m를 올라가 언덕위에 자리한 제2공장은 작은 방부 지주목을 주로 생산하고 그 위에 있는 제3공장은 대형 목재 기둥이나 들보들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체 대지 2,500평에 건평 250평으로 한 겨울인데도 완제품과 재료들이 가득 가득 쌓여있어 보기만 해도 활력이 넘친다.



철재제품 공장전경

흑산도 눈향나무와 미국 풍나무

이곳 진교 농장에서 특이한 조경수는 흑산도 눈향나무와 미국 풍나무다.

야산이지만 조경수 재배가 힘든 급경사지를 많은 비용을 들여 석축으로 계단식 개간을 한 후 하동지역 특산물인 차나무를 식재 하였으나 토질 관계인지 생육이 좋지 않아 그



미국풍나무



계단식 녹지밭과 흑산도 눈향나무 재배지전경

위에 대체 목으로 심은 것이 흑산도 눈향나무다.

눈향나무 하면 땅에 누워서 크는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반대로 지주목을 설치하여 하늘로 높게 키우다 보니 자연히 나선형의 멋진 수형을 만들어 낸다.

멀리 흑산도 섬에서 진주 산업대 교수가 발굴한 수종으로 특이하게 피침이 없고 척박지에서도 잘 자라며 수형이 좋아 옥상 조경용으로 인기리에 판매되어 대형목은 본 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우정조경의 대표 수종으로 자리하고 있다.

난대수종과 미국 풍나무

하동 땅. 경상남도에서 가장 남쪽에 위치한 따듯한 고장의 지리적 장점을 살린 난대수종 전문 농장은 한 겨울 인데도 은목서, 종가시나무, 굴거리나무, 종려나무 등 상록 활엽수들로 농장 전체가 푸르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언뜻 보기에 은행나무를 닮은 가로수들이 눈길을 끈다.

수형은 은행나무와 흡사하지만 가지는 화살나무 처럼 온통 코르크질로 덮여 있다. 지금은 낙엽이 쳐 볼 수 없지만 백합나무와 단풍나무를 닮은 잎은 가을이면 노란색에서 분홍색 또는 빨간색 까지 다양한 색으로 물드는 단풍이 그야말로 장관이라한다. 공해에 강하고 수형이 좋아 가로수용으로 적합하여 멀리 미국에서 들여 온 것으로 새로운 조경소재로 개발 육성코자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신노량포구와 고향섬마을전경 (대도섬)

섬마을에서 키워온 조경인의 꿈

그의 고향은 하동군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거주하는 대도라는 섬이다.

섬마을에서 농사와 어업을 겸하는 반농. 반어업의 집안에서 1964년에 4남1녀중 셋째로 태어났다.

하동군 하면 의례히 지리산과 섬진강. 천년고찰 쌍계사와 전통의 화개장터. 그리고 토지의 최참판댁과 청학동의 도인들을 떠올리는 산촌 지역으로만 생각 하지만 남쪽은 바다를 접한 해안으로 섬마을까지 있다.

고향 땅 대도섬은 남해대교가 있는 노량해협에서

서쪽으로 나가는 광양만 입구에 자리한 크고 작은 7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총 면적 15만평에 70가구 150여명의 주민이 사는 육지와는 5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섬이지만 1690년 장수이씨 부부가 표류하여 정착한 후 300년간을 각성만이 없이 지금도 장수이씨들만 살고 있는 특이한 집성촌으로 행정구역은 하동군 금남면 대도리이다.

젊은 시절 지금 관광지로 유명해진 거제 외도 섬의 멋진 정원 조경이 알려지기 훨씬 전에 형제들과 인근의 무인도를 일궈 그들만의 낙원을 만들고자 노력하던 일이 끝내 아쉬워 잘나가던 직장을 그만두고 조경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진주산업대학 조경학과를 졸업한 그는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간 삼성항공과 삼성SDS에 입사하여 창원과 사천지역에 근무 하는 중에도 조경인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1995년부터 진주 지역에 땅을 마련 조경수 재배를 시작하였고 회사 재임 중인 1997년 우정건설조경을 설립한 후 1998년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인 조경업을 시작하였다.

신뢰와 기술력으로 이룬 성공 비화

그는 처음 경남 진주시에서 조경업을 시작하였지만 당시 조경인 들이 많이 몰려 있는 곳이라 1998년 직장을 그만두고 본격적인 조경업을 시작 하면서 경쟁을 피해 이웃한 사천시로 이전 개업한 것이 주효하였다.

삼천포시와 사천군이 통합한 도농 복합 도시인 사천시는 인구 11만이나 되는 고장이지만 진주시에 조경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인가 그가 이전하여 등록한 것이 사천시 조경업 면허 1호가 되어 많은 홍보 효과를 보았고 특히 당시 보편화 되지 않았던 조경설계업무에 주력하면서 주변에 신임을 얻었으며 대기업 삼성에 근무했던 경영 노하우를 살려 성실히 일한 일면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 된 것은 원예학을 전공한 부인의 열성적인 조언과 격려와 기술지원이 밑바탕이 되었으며, 처음 시작할 때 극구 반대하시던 모친의 우려를 잠재우고 두 내외 모두가 뒤늦게 전공했던 학업을 계속 할 수 있어 그는 진주산업대학 조경학과와 겸임교수로 부인은 원예학과와 시간강사로 일하는 와중에도 지금은 상명대학에서 원예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학구파



흑산도 눈향나무단지



덕천리농장정경

로 오직 조경기술 개발과 연구에 정진한 덕에 신뢰와 기술력이 오늘의 우정조경을 이룩하게 되었다.

묘목들의 요람 덕천리 농장

진교농장에서 3km 정도 떨어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농장은 묘목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묘표장을 갖춘 농장이다. 이곳의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는 굴거리 등 난대 수종들과 여러 종류의 묘목들을 생산 하고, 노지에도 산수유, 쥐똥나무, 칠엽수들이 빼곡히 자리하고 있는 가운데 남천의 빨간 단풍잎은 겨울 하늘을 붉게 물들인다.

묘목들은 직접 생산하여 주로 자급하고 여분은 분양 하면서 새로운 품종 개발을 위한 시험 재배 또한 이에서 이루어진다.

상부의 높은 지대에는 흑산도 눈향나무와 홍가시나무, 동백나무, 은목서의 대형목들이 각각 포지 별로 심겨진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새순과 고운 단풍, 그리고 코르크 줄기가 일품이지만 관목이며



덕천리농장의 모목재배지

줄기가 많아 활용성이 낮은 화살나무를 외대로 높게 대형목으로 키워내어 상품 가치를 높인 명품으로 개발한 것은 그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엿보게 한다.

지역사회를 탈피 국내 최고를 향하여

그의 조경시공은 뛰어난 설계와 성실한 작업만이 아니고 더욱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지 및 관리 보수이다. 처음 시공부터 하자 없이 완전하게 하지만 차후라도 기후 등 자연 재해나 병, 충해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복구해 줌으로써 책임감과 성실성이 정평이나 2004년에는 서울 북판의 드넓은 올림픽 공원 전체의 모든 수목과 잔디, 꽃뿐만 아니라 정자나 벤치 등 각종 시설물 관리를 맡았고 이어서 2006년에는 미사리 조경정기장의 관리를 맡아 일약 대한민국 최고의 조경인으로 우뚝 섰으며 처음 사천시를 기반으로 한 서부경남 지역을 탈피 이제는 서울을 비롯한 강원도 태백, 경남의 양산, 김해, 하동에 지사를 두고 경남 진주시와 산청군, 하동군에 각각 지역에 맞는 조경수 농장 11만평을 가꾸며 조경 계획, 설계와 시공, 자재생산, 유지관리에 따른 분야별 계열사를 설립 종업원 100여명에 연간 매출 300억원을 올리며 전국 경영을 펼쳐 나가는 대형 조경업체로 발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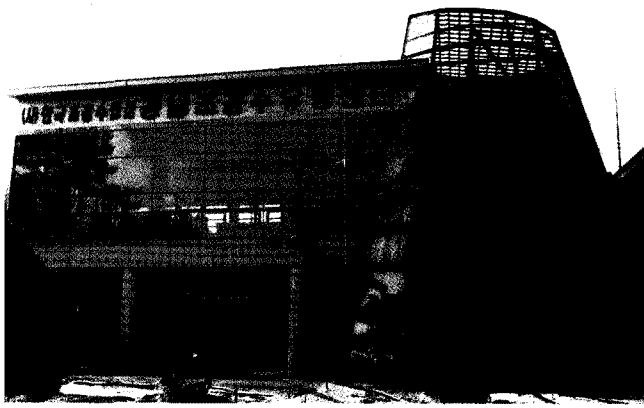
못다 한 꿈 고향땅 관광 조경사업

충무공 이순신장군의 최후의 격전지 이락파(李洛波), 1598. 11. 19일 왜선 500척과 우리측 150척의 해상 전투에서 적 유탄에 맞아 “전방급 신물언아사 물군경군”(戰方急 慎勿言我死 勿令驚軍) 즉 “지금 전투가 급하니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마라 군사들을 놀라

게 해서는 안된다” 라는 유언을 남기시고 전사하신 우리가 보통 노량해전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한 곳은 그의 고향인 대도섬 남쪽과 남해군의 관음포 중간지역 바다로 사람들은 통한의 그곳 바다를 이락파(李洛波)라 하고 장군의 유해가 가장 먼저 닿은 육지인 관음포에 이락사(李洛祠)를 지어 추모하고 있으며 대도섬에도 가장 높은 곳에 장군의 동상을 세워 항상 애국심을 고취하던 고향마을이 2005년 하동화력 발전소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로 생업인 김과 굴과 가두리 양식업을 할 수가 없어 피해 보상을 받은 150억원을 마을 전체가 전액 재투자 총 520억원(공공370억, 재투자150억)을 들여 섬 마을의 일주도로와 상가, 펜션, 콘도 등을 마련 2013년 까지 관광지화 하는 “도서 특화 마을 사업” 공사가 한창으로 젊은 시절 형제들과 실행하다 그친 무인도 정원 조성이 계속 아쉬움이 남았던 것을 이제 제대로 된 멋진 조경사업을 펼쳐 고향 땅 관광개발에 기여코자 그의 모든 기술력과 성의를 다해 계획과 설계를 마치고 행정 절차를 기다리며 꿈에 부풀어 있다.



경남조경수유통센터담 이성기사장



경남조경수유통센터



진거농장 입구전경



대형목서단지



목재제품 공장내부전경

경남 조경수 유통 센터

그는 현재 40명으로 구성된 경남 조경수 유통 센터의 조합장 직을 맡고 있다.

젊은 조합장이지만 그가 유통 센터에 쏟는 열정과 포부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진주시와 사천시 하동군이 연결하는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에 있는 유통센터는 3,000평 대지에 건평 150평으로 2006년부터 시작하여 연매출 40~50억 원을 올리는 우리나라 유통센터중 상위 그룹에 속하며 바로 옆에는 하동 유휴온천에서 대형 물놀이장 개설 공사가 한창인 지역으로 3개 시군이 연결한 지리적인 이점과 관광지역의 장점을 살려 그는 이곳 유통센터를 확장 노인들을 위한 실버타운과 조경수 위탁 재배나 농장관리 등 일자리 제공과 조경을 배우고자 하는 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전학과 실습 장소로 제공 조경에 대한 저변 확대와 기술지원과 일자리 창출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연구하고 개발하는 조경 가족

그의 경영 철학은 전사원이 각자 1가지 이상의 최고 기술력을 갖추어 재배·시공·시설물생산·설치·유지 관리를 총괄 아우르는 토탈 시스템을 구축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진주산업대와 생체 복원사업 협력을 맺었고 옥상조경 및 인공지반 녹화에 관한 연구와 시공 경험으로 최고의 조경회사를 이룩하였으며 사회활동에도 남보다 앞장서 사천시 농촌 종합개발 자문위원, 하동군 녹지 마스터 플랜 자문위원, 하동군 육성사업 자문위원등 지역 사회 활동에도 열성적이며 특히 우리 조경수 협회를 위해서는 젊은 나이지만 유통센터 조합장을 맡아 토지 구입부터 시설 설치 그리고 본격적인 유통 업무까지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아 전국 최고의 유통센터로 육성하였으며 협회 일이라면 남보다 앞장서는 모범 조경인으로 부인 정기령 여사(43세)와의 사이에 남매를 두고 내외 모두 진주산업대의 강단에 서는 연구하고 학문하는 다복한 조경 가족이다.

